



덕진구, 하반기 사회복지요원 소양교육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종성)는 지난 15일 구청 3층 회의실에서 덕진구 소속 사회복지요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사회복지요원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민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요원의 책임 의식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먼저 1부에서는 사회복지요원 담당 주무관이 복무규정 준수 근무 태도, 안전사고 예방 등 기본적인 복무 기강을 안내하고, 사회복지요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의견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요원들이 대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자세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리브러닝 대표 강혜령 강사가 청년들을 위한 금융 내비게이션'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금융기초 이해부터 개인의 소비 패턴 분석, 장기 재무 목표 설계까지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권혜성 기자

전북대병원 김다희 간호사, 질병관리청장 표창

전북대학교병원 간호사가 국가 기후 변화 대응 보건 분야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응급의료센터 김다희 간호사가 2025년 국가 기후변화 대응 건강 분야에 기여한 공로로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김다희 간호사는 전북대병원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의 온열·한랭질환 발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보고·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왔다.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해 국가 차원의 기후보건 정책 수립과 신속한 대응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오상근 기자



전주대 박도형 주임, RISE 유공 교육감 표창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는 RISE사업단 박도형 주임이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학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산업과 대학 간 협력 모델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표창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박도형 주임은 RISE사업단 산학협력실에서 근무하며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참여 기업 및 기관과의 현장 협력 지원을 맡아 왔다. 특히 기업·지자체·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산학협력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무를 주도해 왔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 법전문원 동문, 대학 발전기금 기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동문들이 모교 발전과 후배들의 성장을 응원하며 33,400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임태섭 법학전문대학원 총동문회장(법무법인 오킴스 대표 변호사) 등 28명의 법전문원 동문들은 지난 15일 모교를 찾아 발전기금 기증식을 가졌다. 양오봉 총장은 이날 감사패를 전달하며 발전기금 기부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이번 기부는 2025년 법전문 2회 졸업생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한 '홀커멘데이'에서 마련된 것이다. 10주년을 맞은 졸업 기수가 매년 모교를 방문해 기부를 이어가는 신뢰의 전통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지난해 1회 졸업생의 기부를 시작으로 올해 2회 졸업생들의 참여가 이어지며 새로운 학교 문화로 확산되고 있다. 임태섭 총동문회장은 "홀커멘데이를 준비하며 모교와 후배들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자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생겼다"며 "금액의 크기를 넘어, 선배들의 따뜻한 진심이 학교와 후배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훈 기자

불우회원 돕는 따뜻한 나눔의 장

고미술협회 전북지회 경매전 '성황'

고미술을 매개로 한 나눔의 손길이 연말 전주에서 따뜻하게 펼쳐졌다. 고미술협회 전북지회(회장 이정우)는 15일 오전 11시 전주시 평화동에 위치한 '고서랑 갤러리'에서 불우회원 돕기 고미술 경매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회원과 갤러리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해 우리 전통 고미술품을 매개로 뜻깊은 나눔의 시간을 함께했다. 경매장에는 도자기 서화, 민속품 등 다양한 전통 고미술품이 출품돼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단순한 거래의 자리를 넘어, 선조들이 오랜 세월 지켜온 미술품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되새기며 서로가 아끼는 물품을 나누는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날 경매를 통해 거래된 금액은 총 3천여만 원에 달했으며, 판매로 얻은 수익금 전액은 병마에 시달리거나 가계 형편이 어려운 회원들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고미술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이웃을 향한 연대로 이어진 셈이다. 이정우 회장은 "고미술은 단순한 수집 대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있는 문화의 끈"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미술협회 전북지회는 1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며, 우리 전통 고미술의 보존과 계승 대중적 가치 확산을 위해 꾸준히 힘쓰고 있다. 문화유산을 지키는 손길 위에 이웃을 향한 배려가 더해지면 이날의 경매전은, 고미술이 지닌 또 하나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줄 것이다. /이만호 기자



농화학 기술사 최종 합격 쾌거

김흥수 남원농기센터 과학영농팀장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에 따르면, 현장지원과 과학영농팀(팀장 김흥수) 지방농촌지도사가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2025년 제37회 정기 기술사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농업분야 최고 권위의 자격증 중 하나인 농화학 기술사에 최종 합격했다. 이번 농화학 기술사 시험에서는 풍부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토양·비료·농약 업무의 종합적인 기획·수행 능력을 평가했으며, 전국에서 3명만이 최종 합격했다. 김 지도사는 과학영농팀장으로 신소득작목발굴 실증 연구 및 축산 신기술 보급 업무 등을 담당, 이번에 취득한 농화학 기술사 외에도 종자기술사, 축산기사 등의 자격을 갖춘 농업 분야 전문가다. 또한, 김 지도사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미생물 활용 교육을 통해 화학 비료 사용 감소 및 작물 생육 증진 등 친환경 농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 지도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농화학 기술사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과학영농 분야의 전문가로서 지역 농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군체육회, 근골격계육성 장학금 300만원 기탁

부안군체육회(회장 전동일)는 최근, K컨벤션에서 열린 2025 부안군 체육상 시상식 행사에서 부안군 근골격계육성 재단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은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활동해 온 부안군 체육회가 지역의 미래 인재 양성에도 힘을 보태고자 행사에 참여한 체육회 관계자 200여명이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전동일 회장은 "체육을 통해 성장한 경험이 지역사회로 다시 환원될 버리는 마음에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지역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시, 남원의료원과 무료간병 서비스 협약

남원시는 16일, 남원의료원과 자체 사업으로 운영 중인 '무료간병 온(ON)종일 서비스'의 지원 방법과 지원 기간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개별간병(1:1) 방식에 공동간병(1:5)과 혼합간병(개별+공동) 방식을 추가해 이용자의 선택 폭을 넓혔으며, 지원 기간도 기존 최대 2주(14일)에서 최대 4주(28일)로 확대해 더욱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북전주농협, 연탄 나눔으로 이웃에 온기 전해

북전주농협이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NH북전주농협 지역사회공헌단, 농협전주시지부와 함께 16일 전주시 여의동 일원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우광 조합장과 박병철 NH북전주농협 지역사회공헌단장, 하인진 농협전주시지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20여 명은 난방 취약 가구를 직접 찾아 연탄을 전달하며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했다. 한편 북전주농협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오상근 기자



선운산농협, 지역특산물 땅콩활용 반찬봉사

선운산농협(조합장 김기욱)과 이산면 농가주부모임 회원 20여명은 16일 지역특산물인 땅콩을 이용한 건강한 반찬을 만들어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따뜻한 나눔봉사를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반찬봉사에서는 지역에서 수매한 땅콩을 활용해 땅콩조림과 섀러드 등 3종의 밑반찬을 준비했으며, 반찬은 지역 취약계층 35세대에 전달 되었다. 봉사에 참여한 회원은 손수 만든 반찬을 받고 웃는 어르신들의 얼굴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덕유산리조트 '사랑으로 나누리', 실천면에 사랑나눔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 기탁

무주덕유산리조트(대표이사 성장현) 사내 봉사팀 '사랑으로 나누리'가 16일 무주군 실천면행정복지센터(면장 박종희)에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기탁해 훈훈함을 전했다. 성금은 실천면 지역 내 가정 위락 세대 1가구에 1백만 원(이동당 50만 원)의 장학금을, 한부모가족 10가구에는 가구당 30만 원씩 총 3백만 원을 난방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현영숙 '사랑으로 나누리' 회장은 "오랜 시간 무주군과 발을 맞춰온 자연특별시 무주의 대표 관광자이자 기업으로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동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운봉애향회, 희망2026 나눔캠페인 동참

남원시 운봉읍 관계자는 관내 운봉애향회(회장 신동열)가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운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운봉읍 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더불어 촘촘한 지역 돌봄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동열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금동 어르신, 폐지 모아 나눔 실천

남원시 금동 관계자는 김길남(88) 어르신이 고향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10일 101만5,000원을 기탁하며 꾸준한 기부를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폐지를 수집해 얻은 수입금을 '희망나눔 캠페인'에 올해로 10년 넘게 선정을 이어오고 있으며, 누적 기탁액은 870만 원에 달해 조금이라도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소박한 뜻을 담아 나눔을 실천해 온 것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여약사회-진안군약사회, 이불베개세트 전달

전북특별자치도여(女)약사회와 진안군 약사회는 16일 저소득 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예) 이불베개세트 50개를 전달했다. 이번 따뜻한 나눔 행사는 전북여약사회에서 40만 원을 지원하고, 진안군약사회가 65만 원을 부담해 진행했다. 김진예 회장은 "후원해 주시는 진안군약사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하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우정청, 따뜻한 안부 배달 나눔 실천

전북지방우정청은 최근 전주시와 협력해 취약계층의 안부를 살피는 '따뜻한 안부 배달'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집배원이 반찬을 전달하며 독거노인의 건강과 안전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즉시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전주시와 함께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오상근 기자

